



“착한기업 응원”
애국·보훈활동
가치소비 이어져
L1

metro®

Life

버거업계
조식·지역상생
고객잡기 총력
L2



“영화의 힘은 ‘사람’... 극장서 나눈 감정이 삶의 심포 되길”

속깊은 인터뷰

이철하 영화감독

기술이 화려해지고 인공지능이 영화를 만드는 시대라지만 이철하 감독이 연출을 계속하게 만드는 이유는 현장 그리고 관객에 있다. 최근 영화 ‘오케이 마담 2’를 새롭게 선보이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 감독을 만나 현장을 이끄는 소통 철학부터 관객과 나누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이 감독의 세계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단어는 바로 ‘사람’이다. 그는 카메라 안팎에서 사람을 향한 따뜻한 시선을 놓지 않는다.

-전작에 이어 다시 한번 코미디 액션 작품으로 관객들을 만났다. 연출자 입장에서 코미디란 어떤 장르인가.

“정말 어렵다. 개인적으로는 스릴러를 좋아했던 사람이다. 코미디는 불특정 다수의 관객을 대상으로 의도한 지점에서 정확히 웃음을 끌어내야 하는 장르다. 무섭게 하거나 울리는 것에 비해 개개인의 호불호 차이가 워낙 커서 매번 시험대에 오르는 기분이다. 하지만 창작자로서 누군가를 웃게 만든다는 것은 엄청난 도파민과 묘한 매력을 준다.”

-웃음 코드라는 것이 대본만으로 완성되지는 않을 텐데 연출할 때 어떤 점에 가장 공을 들였나.

“현장의 기운과 소통이다. 잘 적힌 대본을 그대로 읽는다고 웃기지 않는다. 그날 현장 분위기, 사회적 흐름, 배우들의 에너지가 상호작용할 때 비로소 웃음이 터진다. 연출자로서 작가와 배우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으려고 노력한다. 물론 미리 계산한 속도와 방향으로 끝까지 밀어붙여야 할 때도 있지만 결국 영화는 현장에서 함께 호흡하며 만드는 생명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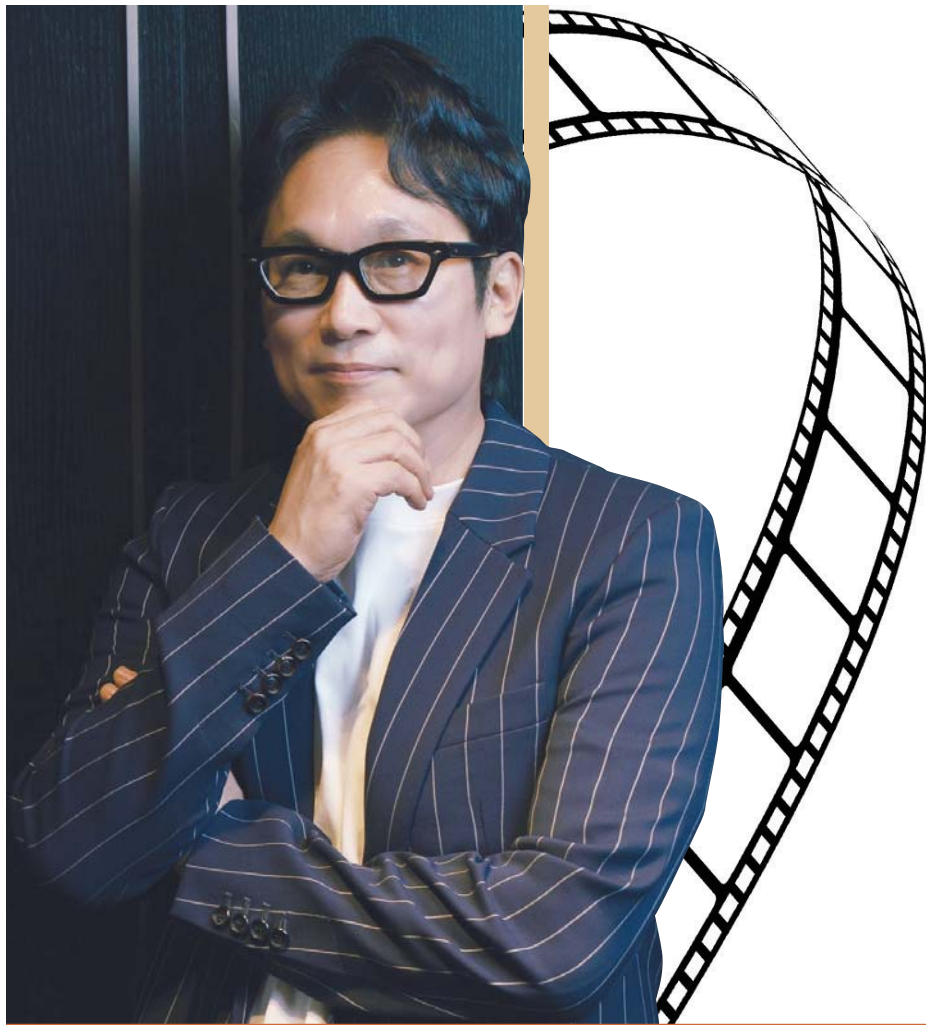
-그렇다면 현장 리더로서 ‘연출’을 무엇이라고 정의하는가.

“영화 연출의 본질은 사람과 대화하며 그 사람이 가진 최대치를 끌어내는 것이다. 연출자는 설계자이자 안금 조율자다. 현장에 가면 메인 스태프만 100명에 달하고 분야별 리더만 10명이 넘는다. 다들 각자 분야에서 조명 하나, 소품 하나를 두고도 의견을 쏟아낸다.

즉 연출자는 프리 프로덕션 단계부터 그림을 그리지만 현장에서는 미술, 음악, 촬영 등에 대한 베테랑들이 저마다의 프로페셔널함을 가지고 다각도로 협력한다. 그 프로들의 ‘이견’을 듣고 수용하고 설득하며 하나로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다. 회사 생활과 똑같다. 그들이 역량을 최고조로 발휘하도록 하는 것은 제 몫이다.”

-작품 밖 현장에서 뿐 아니라 작품 속을 들여다봐도 수많은 캐릭터가 살아 움직인다.

“그렇다. 영화의 핵심에는 또 배우가 있다. 배우들이 캐릭터를 연구하며 내놓은 아이디어나 연기 중에 극대화하는 감정은 최우선으로 반영한다. 그래야 한 명 한 명 살아있는 멀티 캐릭터



가 완성된다. 이 역시 사람과 사람의 소통이다.”
-‘오케이 마담 2’에서는 수많은 사람 이야기 중 ‘가족’이라는 관계에 집중했다.

“요즘은 1인 가구도 늘고 반려견을 비롯해 가족에 대한 개념이 크게 변하고 있다. 형제는 바뀌나 인간이 누군가를 온몸과 마음을 다해 돌보는 것 그리고 혈육이든 마음으로 맺어진 관계든 서로를 향해 나누는 정(情)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영화에서 살펴보면, 미영(배우 엄정화 분)이 사춘기 딸과 겪는 끈끈한 모녀 관계는 물론, 극중 미영을 쫓는 범죄조직 리더 안아(소녀시대 수영 분)와 팽팽하게 맞서는 대립 관계에서도 서로를 인지하고 감정을 주고받는 역동성이 존재한다.

또 가족이라면 길으로는 티격태격하고 잔소리가 오가며 불편할 때도 있지만 속으로는 울타리가 된다. 이번 영화 속 가족애가 다소 고전적인 소재일 수도 있지만 시대의 흐름에도 변치 않는, 인간이 관계 속에서 가지는 진짜 가치를 이야기하고 싶었다.”

-현장 촬영을 마친 후속 과정은 어떠한가.

“출산을 하고 육아를 본격 하는 기분이다. 임신과 출산 자체도 힘들지만 이제 아이를 보살피듯 계속 챙겨야 한다. 특히 이번에는 강행군 속에서도 스태프와 배우 모두에게 단 한 번의 사소한 사고 없이 무사하게 진행됐다. 천만다행이고 함께 고생하며 버텨준 스태프와 배우들에게 감사할 따름이다.”

-그렇게 완성된 영화가 마주하는 또 다른 ‘사람’은 관객이다. 관객을 만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최근 행사에서 영화감독을 꿈꾸는 어린이

최근 ‘오케이 마담2’ 영화 선행
코미디 장르, 현장 소통이 열쇠
사람과 대화하며 최대치 끌어내
변치 않는 가족애 가치 말하고파

기술 발전에도 극장의 힘 여전히
극장서 나누는 유대감·문화경험
대체 불가능한 영역으로 남을 것

영화 감상 자체가 ‘즐거움’ 돼야
누군가에게 휴식과 용기 되길



관객들을 만났다. 아이들의 순수한 함성과 솔직한 감상평에 ‘오케이 마담 2’ 팀원들 모두 기쁨과 행복의 눈시울을 적셨다. 개인적으로는 한 직장인 관객이 ‘감독님이 열심히 일을 하며 그 결과 역시 열심히 즐기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며 전해준 손 편지를 읽고 가슴이 뭉클했다. 누군가 제 영화를 보고 삶의 힘을 얻고 그 모습에 저 또한 힘을 얻는 선순환은 삶의 진정한 활력이다.”

-영화라는 매체가 관객이라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가치는 무엇인가.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자극과 용기다. 어릴 적 영화 ‘시네마 천국’을 보고 감독이라는 꿈을 다짐했던 경험이 있다. 영사기사 알프레도와 꼬마 토토가 나누는 교감. 그 둘의 추억과 배움이 토토가 자신의 길을 찾아 성장해 가는 데 확신을 준다. 영화 속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전한 관계를 보며, 영화라는 종합 예술과 감독이라는 꿈을 키웠다. 영화 한 편이 한 사람의 인생에 목표를 선물한 셈이다.”

-이제는 첨단 기술로 인해 제작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데 영화와 극장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나.

“2006년쯤 필름이 없어진다고 했을 때 불과 5년 만에 디지털로 전환됐다. 지금은 인공지능으로 음악과 영상을 아주 쉽게 특히 간단하게 만들어내는 시대다. 하지만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극장은 사라지지 않는다.

19세기 후반 에디슨의 전구 발명으로 촉진된 전기 기술의 혁신과 영사기 등장부터 1895년 영화의 탄생을 거친 이래 감동한 극장에 모인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은 영화의 빛을 밝혔다. 그렇게 영화는 관객과 함께 웃고 울며 감정을 공유하는 대중문화와 궤를 같이해 왔다. 스포츠 경기나 라이브 콘서트 현장에서 함께 함성을 지를 때 에너지가 폭발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방 안에서 홀로 스마트폰 화면을 보는 편리함과 극장이라는 공간에 사람이 모여 유대감을 나누는 가치는 차원이 다르다. 첨단 기술로 시대가 변할수록 역설적이게도 영화와 극장이 전달하는 문화 경험은 대체 불가능한 독보적인 영역으로 남을 것이다.”

-‘오케이 마담 2’를 통해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공포 영화든 코미디 영화든 장르를 불문하고 영화를 본다는 행위 자체는 즐거움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영화가 어떤 삶에 심포가 되길 바란다. 한 번뿐인 인생을 살며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했으면 좋겠다. 오케이 마담 미영(배우 엄정화 분)이 과거를 숨기며 살다가 비로소 자신이 가장 잘하는 모습으로 당당히 서듯 말이다. 아이든, 어른이든, 직장인이든, 주부든 오늘 당장 눈앞의 현실에 감하지 말고 주말이라도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마음을 열어드었으면 좋겠다. 누군가에게는 부담 없이 깔깔 웃을 수 있는 휴식이, 누군가에게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작은 용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철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metro

메트로 한줄뉴스



▲한국 축구 ‘임시 감독’에 모레노...내년 아시안컵까지 맡을 수도
▲고우석, 친정팀 LG 복귀 결정...오늘 오후 귀국해 계약 논의
/사진 뉴스스

▲원현 김민재, 새 시즌 주전 경쟁 청신호...“없어진 안 될 존재”
▲3800년 전에도 땅 사고 계약서 썼다...뺨기문자 점토판 최초 공개

▲공룡 발자국·천연동굴도 찾아간다...국가유산 방문코스 100곳으로
▲경복궁 근정전 월대 출입 제한...9월 2일부터 두 달간